

농림까지 영남 출신...“탕평” 이정현 머쓱

개각폭 예상보다 크게 줄어...청문회 통과 고려한 듯 차관급 한명만 호남 출신...靑출신 중용 레임덕 막기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단행한 개각은 예초 예상보다 폭이 작았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견의로 기대를 모았던 호남 출신 인사 발탁은 차관급 한 명에 불과해 분위기가 얼얼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개각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인 출신인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를 제외한 나머지 2개 부처 장관 내정자와 4개 부처 차관급을 전부 정치인이 아닌 관료 혹은 전문가로 채웠다는 점이다. 직전 개각인 지난해 12월에는 유일호, 강은희 당시 의원이 각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입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 문체부·농식품부·환경부가 국정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여서 보다 전문성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장관을 내정해 정책 추진을 강하게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 부처 외에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던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노동부 장관은 모두 유임됐다.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가 함께 발표되기는 했지만 4~6명의 장관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예초 여러 내 예상보다는 폭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4·13 총선 참패 직후부터 제기된 인적쇄신론에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고 응수한 박 대통령이 여론의 압박에 쫓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끌고 갔다는 뜻을 담은 인사로 해석된다.

문제는 탕평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점이다.

3개 부처 장관내정자의 출신지를 보면, 조운선 내정자는 서울, 김재수 내정자는 경북 영양, 조경규 내정자는 경남 진주다. 2명이나 영남 출신인 것이다.

특히 농식품부 장관의 경우 군사정권 때부터 농도인 전라도 출신이 중용돼 왔으나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대구·경북 출신이 모두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측은 따르면 전두환 정권 때부터 이번 개각 전까지 농림부장관은 모두 25명이었으며 이중 68.0%인 17명이 호남 출신이었다. 구체적으로 ▲전두환 정권 5명중 2명 ▲노태우 정권 5명 중 3명 ▲김영삼 정부 6명 모두 ▲김대중 정부 4명 중 2명 ▲노무현 정부 4명 중 3명 ▲이명박 정부 4명 중 2명이 호남 출신이었다.

하지만 이 정부 첫 농식품부장관인 이동필 장관은 경북 의성, 두 번째인 김 내정자는 경북 양양 출신이다.

이 때문에 탕평 인사로 건의했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만 머쓱하게 된 상황이다.

이번 개각에서 호남 출신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를 나온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있지만 관가에서는 차관의 영향력을 크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각의 또 다른 특징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중용됐다는 점이다. 자칫 레임덕에 접어들 수 있는 임기 말 공직사회를 둘러싸고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의 국정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기자 jkpark@kwangju.co.kr



최장수 장관 또 유임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장으로 들어가던 중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단행된 개각에서 원년멤버인 윤병세 환경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교체된 것과 달리 윤병세 외교 장관은 유임됨에 따라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신임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우병우·외교안보라인 신임 재확인

우수석 인사검증 작업 수행...청와대 거취 언급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단행한 개각 결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개각 전 정치권에서는 각종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은 우 민정수석에 대해 교체할 예정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막중한 이정현 대표가 당내 분란을 정리하고 국정에 힘을 보태는 데 힘을 빌려주기 위해서도 박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우수석을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개각 발표 이전부터 한결같이 “우수석 의혹은 사실을 입증된 것이 없다. 개각과 우수석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이번 개각 발표 때도 우수석 거취와 관련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무엇보다 우수석은 이번 인사검증 업무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수석 거취에 별다른 변화 기류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수석 교체를 지금 단행하는 것은 레임

덕을 부추길 수 있어서 우수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잠잠해질 즈음 조용히 우수석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갈등이 계속되고 동북아 정세 유동성이 심화하면서 외교안보 라인 교체 여부도 관심을 끌었으나 변동이 없었다. 특히 박근혜정부 원년 멤버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경우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분위기가 일단 차원에서 교체 예상됐었다. 그러나 이번 개각에서도 유임되며 장관은 내각의 유일한 원년멤버 장관으로 남게 됐다.

아울러 여러 일각의 전망 또는 야권의 교체 요구와는 달리 미래창조과학부와 법무·노동부 장관도 유임됐다.

이번 개각으로 정황은 농축산식품부에서 농촌진흥청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청와대 원년 비서관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 이른바 박 대통령 측근 비서관 3인방만 남게 됐다. /복지기자 jkpark@

3개 부처 장관 내정자 프로필

장관→수석→장관...현정부 세번째 요직

■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운선(50) 전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돼 박근혜 정부에서 세 번째 요직을 맡게 됐다.

조 장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내각에서 여성가족부 장관(2013~2014년)을 맡았고, 2014년 6월 청와대 참모진 개편 때 최초의 여성 정무수석으로 기

용되며 청와대의 ‘유리천장’을 깨뜨려 화제를 모았다. 법조인 출신인 조 장관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2012년부터 당선인 시절까지 대변인으로서 박 대통령을 보좌했다.

▲서울 ▲세화여고, 서울대 외교학과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나라당 대변인 ▲18대 국회의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연합뉴스

30년 농업분야 공직생활 거친 농정전문가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59)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는 30년 넘게 농업분야 공직생활을 거친 농정전문가다.

행정고시 21회 출신으로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 농림수산식품부(현 농식품부)에서 농업정책과장, 농산물유통국장, 주미대사관 농무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으며, 농촌진흥청장관과 농식품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2011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으로 임명된 후 2년 연속 연임에 성공하며 2007년 공공기관 임기제 도입 이후 최초 재임임·최장수 CEO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경북 영양 ▲행시 21회 ▲경북고·경북대 경제학과·서울대 행정학 석사·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석사·중앙대 경제학 박사 ▲농산물유통국장 ▲농촌진흥청장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연합뉴스

재정·사회 정책 전문성 갖춘 정통 경제관료

■ 조경규 환경부장관

조경규(57)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재정·경제·사회 정책 전반에 걸쳐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정통 경제관료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 한국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기획예산처 혁신인사기획관을 거치고서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

진기획단장, 공공혁신기획관, 공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이후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으로 복직·노동 업무 등의 예산 업무 조정을 진두지휘했다. ▲진주 ▲진주고·한국외대 경제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미국 오리건대 대학원 경제학과 ▲행시 29회 ▲기재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기획단장·공공혁신기획관·공공정책국장·사회예산심의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제2차장 /연합뉴스

새 차관급 내정자 프로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국무조정실 2차장	농촌진흥청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정만기 (57)	 노형욱 (54)	 정준근 (56)	 박효호 (53)
경원출신 서울 중영고, 서울대 국민윤리 교육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프랑스 파리10남대프랑스대 경제학석사 행시 27회 산업자원부 산업통상기획관,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대통령 산업통상자원비서관	전북 순창 광주 제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행시 30회,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 행정예산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 재정업무관료	충남 천안 대전고, 서울대 농학과, 국방대학원 기술고시 20회, 농림부 혁신인사기획관, 농림부 농촌정책국장·농어촌 정책국장,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실 농축산식품비서관	충북 서대천고, 연세대 법학과 사시 29회, 제주지검 검사,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대검찰청 중수1과, 수원지검 행정지원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야권 “국민·야당 능멸한 오기·불통 개각”

야권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에 대해 “국정쇄신 의지와 거리가 먼 ‘오기개각’이자 ‘불통개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야권은 해임을 요구해왔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교체되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쇄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시내내기 개각’으로 회피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며 “이번 인사는 한마디로 불통인사”라며 무엇보다 우수석의 해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은 민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의혹만발상 우병우 수석, 국민 분열의 주범인 박승춘 보훈처장은 보란 듯이 유임했다”며 “국민과 야당을 능멸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마디로 국정 쇄신도, 민심 수렴도, 지역 탕평도 없는 ‘3무(無) 개각’”이라며 “쇄신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돌려막기 식으로 장관 및 자리 바꾸는 ‘짚감 개각’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계(우측화·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박승춘 처장은 2013년 국회가 의결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3년째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온라인 사전 상담 신청자 창업특전 제공 브랜드



수제버거&치킨



숙박 프랜차이즈



프리미엄 웰빙피자



떡볶이 프랜차이즈



세계최대 여성성용 피트니스



키즈&맘스 카페

홈페이지에서 창업특전 확인해보세요!

..... 더욱 많은 창업아이템은 현장에서 확인!

주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광주·전남지회
法人 Korea Franchise Association Gwangju Jeollanam-do Branch

주관  제일좋은진담

후원  한국지역산업연구원
Korea Regional Industry Research Institute

www.yesexpo.co.kr

문의 02)856-1402

2016 광주·전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8.19(금)~2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무료창업세미나 일정

	8월 19일(금)	8월 20일(토)	8월 21일(일)
13:30~14:20	점포마케팅전략	푸드트럭창업?	하반기창업트렌드?
14:30~15:00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
15:10~16:00	호남지역에 맞는 외식메뉴개발 전략과 성공사례	외식메뉴 트렌드변화와 성공사례	

*일부 변경될수있음

1매 2인 무료입장권